

한일 정상회담 내용과 성과

관심은 미래...경제협력 '신시대'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은 소원해진 한일관계를 정상화해 미래지향적 '신시대'를 개척하고, 양국간 실질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이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21세기에 맞는 실용주의 자세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청와대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이 대통령의 평소 대외외교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아니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만들자는 입장에서 이미 선진국 대열에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실용적 입장에서 접근하려 한다"며 "실용적 한일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일 간에 이런 공감대가 이뤄진 탓인지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을 자제했다.

특히 양 정상은 지난 2005년 6월 이후 중단된 서틀외교를 복원,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틀외교는 한일 두 정상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담담이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21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며 마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틀외교' 3년만에 복원...북핵 평화 해결 재확인

나 1박2일의 짧은 일정으로 편하게 양국을 방문해 허심탄회하게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

실제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8개국) 정상회담 때 제3차 한일정상 회담을 갖고, 이어 하반기 후쿠다 총리가 방한해 또 한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올해에만 일본 총리와 총 5-6차례의 서틀외교성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 정부 후반 무렵 1년4개월 동안 양국간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는 천양지차라 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두 정상이 양국간 젊은 세대들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도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구상과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입장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끌어 올린다는 자신의 '비핵·개방·3천 구상'을 설명하고, 후쿠다 총리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적지 않은 성과로 꼽힌다.

이밖에 환경, 에너지, 개발원조 등 범세계적문제에 대해 상호협력하는 동시에 한중일 3국간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도 이번 회담이 남긴 성과중 하나다.

특히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남치문제가 6자회담 진전에 장애

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끌어 올린다는 자신의 '비핵·개방·3천 구상'을 설명하고, 후쿠다 총리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적지 않은 성과로 꼽힌다.

이밖에 환경, 에너지, 개발원조 등 범세계적문제에 대해 상호협력하는 동시에 한중일 3국간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도 이번 회담이 남긴 성과중 하나다.

특히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남치문제가 6자회담 진전에 장애

한일 FTA 교섭 재개키로

'한일 비즈니스 서밋' 첫 회의...5개항 합의문 양국 정상에 보고

한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단체장과 재계 총수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은 21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5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이 양국 관계의 강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간에 보다 깊은 경제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밋 라운드테이블은 한일경제 회의, 한일경제인회의 등 기존 채널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1차 회의는 21일 도쿄에서, 2차 회의는 올 가을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라운드테이블 위원장은 조석래 전

경련회장과 미타라이 후지오 일본 경제단체장 등이 함께 맡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실질적 논의를 위해 분야별로 최고위급 재계 대표자로 구성하되 총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합의문에는 양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을 통해 투자환경 정비·개선과 관련한 과제 발굴에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부품·소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환경, 에너지절약, 지역간 산업 교류 등의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제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관계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EPA(경제연계협정) 교섭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에 양국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구축과 국제사회에서 양국 경제계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폭넓게 검토키로 하는 것도 포함됐다.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전경련 조석래 회장 외에 대한상공회의소 손준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이희범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현대차 정몽구회장, LG 구본무 회장, SK 최태원 회장, 금호아시아나 박승구 회장,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미타라이 경단련 회장 외에 니시무로 타즈오 경단련 평의원회의장, 경단련 부회장인 미무라 아키오와 와타리 후미아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후루카와 카츠오 등 11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日 천황 한국 방문 못할 이유 없다"

李 대통령, 아키히토 일왕 면담

일본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21일 오후 황궁에서 아키히토 일왕과 미치코 왕비를 면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 방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역사의 진실을 망각하지 않고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했고, 이에 대해 아키히토 일왕은 양국 국민이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서

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상호 신뢰와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간 교류확대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고, 아키히토 일왕은 젊은 세대들간의 교류확대 등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대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키히토 일왕의 한국 방문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왕 방한과 관련, '일왕' 대신 '천황'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전에 얘기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지만 일본 천황이 굳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일본 아사히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일왕의 방한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거듭 방한을 초청함에 따라 상사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 합의 '서틀외교'란 양국 정상 수시로 오가며 현안 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 앞서 복원에 합의한 '서틀외교'는 양국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며 격자에 구애받지 않는 실무회담을 열어 소통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양국이 서틀외교 복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참여정부 시절 원만치 못했던 한·일 외교관계를 제자리로 돌려

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전·현직 총리 등 100여 명을 이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한 것도 양국간 신뢰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반증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두 정상은 가급적 한해 최소한 1번씩을 상대국이나 제3국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만나 양국 현안과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 서틀외교에 합의했으나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1년만에 중단됐었다.

역사적으로 '서틀외교'라는 용어는 양국간 정례 실무회담이 아니라 '제3자 중재 방식'으로 통용돼 왔다. 세계정치사에서 서틀외교라는

말을 만들어낸 주역은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지난 1970년대 중동위기 당시 아랍과 이스라엘을 중재자 역할을 맡았던 게 유래가 됐다.

이후 서틀외교는 외교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도 양측 정파가 첨예하고 맞서면서 대외의 필요성을 느낄 때 제3자가 양측을 오가며 대화를 성사시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北, 핵포기가 서바이벌 게임 이기는 일"

李 대통령-수행기재단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김정일 국 방위원장이 핵을 갖고 있어야 힘을 갖고 서바이벌(생존)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핵을 포기하는 게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기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 한 호텔에서 수행 기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북핵 사태 해결은 6자회담을 통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에 얘기했고 중국과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는 주민을 굶기고 하는 지도자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면서 "잘되면 그렇지 않 안되면

만날 수 없다고 하며, (북미간) 평화 협정도 그렇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쇄교 협상 타결과 관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없더라도 해야 할 문제였고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진 것으로, 일찌감치 관련이 없었을 것인데 미루다가 이렇게 됐다"면서 "우리가 양보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정치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하게 게재 드립니다.

• 직 통: (062)227-9600 • 팩 (062)220-0553
 • FAX: 227-9500 • 이메일: design@kwangju.co.kr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양업·모임
 사설금융·대매·부동산·대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001-107-228160 ◆농협: 617-01-108334
 ※해금주(주)광주일보사

고용군 공고 제2008-449호

사전환경성검토(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소화전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고용군 소화전정비 종합 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작성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2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08년 4월 22일

고용군 수

1. 사업개요: 고용군 소화전정비 종합계획 132개소 L=162,651m
2.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 가. 공람기간: 2008. 4. 22 ~ 5. 11(20일간)
 - 나. 공람장소: 고용군청 재난안전관리과, 읍면사무소
3. 주민설명회 개최
 - 가. 개최일시: 2008. 5. 7(수)
 - 나. 개최장소: 고용읍사무소 회의실
4. 의견제출 방법
 - 가. 제출방법: 서면제출(고용군 고용읍 육하리 200번지 재난안전관리과)
 - 나. 제출기간: 공람기간
5.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은 고용군청 재난안전관리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군 재난안전관리과(☎061-830-6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입 및 경력직원 (설계·감리) 모집

당사는 건축설계·종합감리·전기 및 소방설계감리업체로서 금번 신규사업기술용역 참여등 사세확장과 더불어 21세기를 함께 할 경력 직원을 모집합니다.

구분	분야	인원	해당공통사항등
감리 분야	○신규: 건축·토목	각 분야 0명	○신규: 설계, 시공, 감리경력이 4년 미만인 자 ○경력: 감리사이상 / 전기-고급이상(즉시투입가능자) 통신·소방·비상중도가능 ○자격증소지자로서 최근 기술보수교육 5일 이상자 우대
	○경력: 건축·기계 토목·전기 소방·통신		
설계 분야	○전기 및 소방분야 설계	각 분야 0명	○전기 또는 소방분야 설계가능자로서 자격증소지자 우대 ○전기기술사소유자 1인 급구

2.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다. 자필이력서(만명람판 사진부착 및 우측상단에 응시분야, 연락처, 희망연봉 필히 기재)
 라. 경력확인서(감리: 건설기술협회, 건설기술인협회, 전기: 전력기술인 협회, 기타: 해당경력기관)

3. 제출처 및 제출방법

가. 접수기한: 2008년 04월16일부터 해당분야 인원 총원시(04월30일)까지
 나. 접수처: 우편번호: 502-180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66-14(4층)
 문의전화: 062-382-7560 (주)지에이엔지니어링 총무담당자 F A X : 062-382-7565
 E-mail : tohyung3@hanafos.com
 다.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FAX전송 및 본인 직접접수 가능합니다.
 라.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지에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GLOBAL ARCHITECTS & ENGINEERS CO., LTD.
 [건축설계·종합감리·전기소방설계 및 감리업]

SONY의 모든 것

www.119accessories.co.kr

소니광주전시장(062)522-2000

DVD.CD 제작전문

상품홍보, 행사, 기념앨범

▶ 기업, 종교, 병원, 학교 등 <
 ▶ 광주지사: (062)223-1234~5
 ▶ 서울사무소: (02)420-4691
 www.dvdq.co.kr
 (주)광주사운드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치수(990518-1046817)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시간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년873
 공 고 인: 최영희, 김민길, 강경남
 한정승인수리일: 2008. 4. 11
 공고기간: 2008. 4. 22 ~ 2008. 6. 21
 연 락 처: 광주 북구 연재동 81-1 새한아파트 102동 1203호 강민길(019-647-7965)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조성재(600207-1665514)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시간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년869
 공 고 인: 김해삼, 조갑원, 조은경, 조은주
 한정승인수리일: 2008. 4. 11
 공고기간: 2008. 4. 22 ~ 2008. 6. 21
 연 락 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968-1 주경아파트 203-310 조은주(010-2063-4478)